

거리질서 확립과 허례허식의 추방

질서는 건전한 기풍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절대 불가결한 핵심요인이다.

사회 정화 위원회는 밝고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금년도를 「사회질서 확립의 해」로 정하고 범 국민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사회 질서란 사회 질서나 교통질서 뿐만 아니라 행락질서, 상거래 질서, 기타 민주시민이 지켜야할 공공질서등 사회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포함하게 된다.

사회정화 위원회는 쉽고 간단한 것부터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원칙 아래 당면 문제의 홍보나 제도로서 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초시설을 확충 개선하며, 질서 의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속 방법도 개선함으로써 질서의 체질화와 생활화를 꾀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질서확립 의지에 전국민은 적극 호응하여야 하며 양계업을 경영하는 전국의 회원들은 자발적으로 솔선하므로써 사회의 발전과 양계업의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

본회는 회원이 전국에 산재하고 생업에 여념이 없으므로 집단교육이나 무리한 과제 설정을 지양하고 각종 회의나 강습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원을 제도하고자 한다.

거리질서의 제일 첫번째 실천과제는 교통질서 확립이 될 것이다. 운전자가 차량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 이상으로 보행자는 보행규칙을 준수하므로써 서로 솔선하고 양보하는 생활을 정착화 시켜야 한다. 승차시 줄서기, 횡단 보도 건너기, 노약자 보호하기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두번째 과제는 공공질서의 준수가 될 것이다. 거리에 침 안뺨기, 담배꽂초 안버리기, 휴지 안버리기 등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민족으로서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거리질서 확립과 함께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야 할 것은 허례허식이다.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우리의 모든 회원들은 가정의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주위의 이웃 사람 계몽에도 앞장서야 한다. 정부는 지난 3월16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포하고 모든 공직자는 솔선하여 준수하고 모든 국민들도 계몽과 홍보를 통해 생활화 시키고자 한다. (다음 5월 호에 시행령 게재예정)

우리 전국의 양계인 들은 거리질서 확립이나 허례허식추방 뿐만 아니라 상거래 질서와 생산조절에도 앞장서야 한다.

봄철을 맞아 유통질서의 확립, 입추조절, 불량 초생추 유통금지, 경영의 합리화를 시도하므로써 업계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불신 풍조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건전한 업계 발전과 명랑한 상거래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모든 양계인들은 하나로 뭉쳐서 불신과 비난이 아닌, 화합과 대화로서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 시키고, 양계업을 안정시켜야 한다. 누가 해 주리라는 안일한 기대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서 해결해야 한다. 모든 양계인들은 거리질서의 확립과 양계업 안정을 위해 솔선하고, 단합하며 건전한 가정생활과 사회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거리질서 확립과 가정의례 준수를 생활화하자